

신농양이 동반된 급성 신우신염에 합병되어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 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임아름 · 한정완 · 송용근 · 송원준 · 김재현 · 김영진 · 박태진 · 서장원

A Case of Infective Endocarditis Complicated by Acute Pyelonephritis with Renal Abscess

Ah Leum Lim, Jung Wan Han, Yong Keun Song, Won Jun Song
Jae Hyun Kim, Young Jin Kim, Taejin Park, Jang Won Se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Hallym Kidney Research Institute

서 론: 감염성 심내막염은 질병이 중하고, 사망의 위험도가 높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나 원인이 될 수 있는 균혈증의 다양한 경로와 임상양상 및 색전증에 의한 합병증의 다양성과 비특이성으로 인하여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저자들은 신농양을 동반한 급성 신우신염 및 균혈증으로 치료하던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서 병발된 세균성 심내막염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중 례: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동에 수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는 70세 남자 환자가 1주일간의 발열로 입원하였고 요검사, 혈액배양검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급성 신우신염과 우측 신농양 및 장구균 (*Enterococcus faecalis*) 균혈증의 소견을 보여 이에 감수성 있는 항균제인 fluoroquinolone으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발열 호전 및 백혈구 증가증의 호전, 및 CRP의 감소 소견을 보여 치료를 유지하였다. 항생제 사용 16일째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추적 검사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신농양의 크기가 약간의 감소를 보였으나 2주 이상의 항균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호전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CRP의 증가와 함께 균혈증이 지속되는 소견을 보여 경피적 배농술을 시도하였으나 배농은 불가능 하였으며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대동맥 판막에 위치한 과운동성의 종괴 소견이 발견되어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하였고 혈액배양 균 감수성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ampicillin과 streptomycin으로 항균제를 변경하여 치료를 유지 중이다.

결 론: 급성 신우신염에 합병된 감염성 심내막염은 드문 편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 Words: 급성 신우신염, 신농양, 감염성 심내막염

Acute pyelonephritis, Renal abscess, Infective endocarditis